



이탈리아 금융시장 위기 고조로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 국채 매입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이탈리아는 총리사퇴 언급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정치 안정이 요원해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유로출범 이후 최고수준에 도달함.

-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1월 9일 전일대비 55bp 상승한 7.299%를 기록하여 1997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임.
-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하원 예산안 투표에서 과반석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뒤 퇴진 압력이 높아지자 의회의 경제개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퇴진 의사를 밝혔으나, 이후 이탈리아 정국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됨.

■ 이탈리아 정국 운영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선물거래 청산소가 이탈리아 국채 거래 증거금을 인상시킨 것은 이탈리아 국채수익률 급등의 다른 요인으로 작용함.

- 유럽 최대의 선물 거래 청산기관인 LCH클리어넷은 11월 9일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거래 증거금을 인상함.
- 거래 증거금 인상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(매매 비용)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.
- LCH클리어넷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상위 AAA 신용등급 국가의 수익률보다 450bp 이상 높을 경우 지급불능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증거금을 인상하도록 규정함.
 -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과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의 차이(스프레드)는 이미 550bp를 상회하고 있음.
- LCH클리어넷은 아일랜드의 부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.

■ 국채 수익률이 7%를 상회한 것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에 비추어 볼 때 이탈리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구제금융이 임박한 것을 의미함.

- 국채 수익률 7%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짐.
-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은 국채 수익률이 7%를 넘기 시작한 시점에서 각각 17일, 22일,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음.

■ 11월 9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한때 7.458%까지 상승했으나, 유럽중앙은행(ECB)이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11월 10일에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.

- 로이터통신은 유럽중앙은행(ECB)이 이탈리아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였으며 대상은 2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라고 밝힘.
- 또한 이탈리아는 11월 10일 50억 유로 규모의 1년 만기 국채 입찰에 성공함.
- 11월 10일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6.92%로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임.

(Financial Times 11/8, 11/9)